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

작은 마음

제 2107호 2019. 11. 10. 연중 제32주일 · 평신도 주일

제1독서 : 마카베오기 하권 7,1-2.9-14
제2독서 :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2,16—3,5
복 음 : 루카 복음서 20,27-38 또는 20,27.34-38

발 행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
주 소 :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'작은마음'
이메일 : littlemm1@hanmail.net

시각장애인을 위한
음성변환용 바코드

그림_ 서예희 발레리아

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"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. 그러나 저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.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.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.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."

신부님 말씀

하느님 나라

15지구 도림동 성당
안홍일 노엘 신부님

찬미예수님! '작은마음' 친구들 한 주간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? 혹시 우리 친구들은 죽음을 무섭고 두렵게 생각하나요?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어느 성당에서 새벽 미사를 준비하는 데, 한 어머니가 제의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. 무슨 일인가 하고 이야기를 들었어요.

"제 아이가 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. 아직 초등학교 4학년 밖에 되지 않았고,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관을 보면 아이가 겁을 먹고 너무 놀랄 것 같아요. 오늘 미사 복사는 빼주시면 안 될까요?"

그날은 돌아가신 분이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는 장례미사를 하는 날이었어요. 우리 친구들은 장례미사나 장례식에 함께 한 적이 있나요? 어땠나요? 무섭고 두려웠나요?

신부님들은 미사를 할 때 제의를 입어요.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에 따라서 제의의 색이 바뀌어요. 혹시 부활과 성탄 때 신부님이 어떤 색 옷을 입는지 보셨나요? 맞아요, 흰색을 입어요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,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쁜 날이기 때문이에요.

그런데 장례미사 때에도 신부님들은 흰색 제의를 입어요. 물론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이 더 이상 함께 못한다는 마음에 슬플 수 있지만, 하느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기쁜 날이기 때문이에요.

그림_ 최진태 임마누엘

우리 친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죽음을 걱정하고 무서워하기보다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하느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하느님이십니다!

소금통

오늘 복음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?

① 사두가이 ② 바리사이 ③ 율법학자 ④ 열 두 제자

제24회 '작은마음 잔치'
소망 상 <그림 부문>

예수님,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

혜화동 성당 1학년
양서진 마리스텔라

◆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. (시편 37,4) ◆

예수님의 심장처럼

창4동 성당 2학년
이규민 토마스 아퀴나스

예수님의
심장 그림을 보았다.

가시가
예수님의 심장을
찔러서 피가 났다.

아직 이름도
못 지은 불쌍한
아기 동생은

심장이 아파서
수술 때문에 피가 났다.

예수님도 심장이 아프시니까
동생 마음을 아시겠지요.

동생이 예수님처럼
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
도와주세요. 아멘.